

재정경제부, 일본 도쿄에서 KTB 투자자 설명회(IR) 실시

- 국고정책관, 9개 주요 금융기관 대상 WGBI 편입효과 및 애로사항 청취
- 'WGBI 상시점검 및 투자유치 추진단' 통해 해외투자자 접근성 개선 노력 지속

재정경제부 허승철 국고정책관은 '26.4.16.(목)~4.17(금) 일본 도쿄를 방문하여 FTSE Russell, 연기금, 주요 자산운용사, 글로벌 커스터디 은행(수탁은행) 등 총 9개 기관*과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번 투자설명회(IR)는 4월 FTSE Russell 세계국채지수(World Government Bond Index, WGBI) 편입 개시 이후 일본계 투자자들의 투자상황과 계획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①FTSE Russell, ②일본공적연금(GPIF), ③Amova자산운용, ④스미토모 미쓰이 자산운용, ⑤스미토모 미쓰이 신탁은행 USA, ⑥에셋매니지먼트 원(ONE), ⑦미쓰비시UFJ신탁은행, ⑧노무라, ⑨커스터디뱅크오브재팬

허 국고정책관은 투자자들과의 면담에서 3월말부터 일본계를 중심으로 신규 투자가 이어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WGBI 편입이 차질없이 진행된 점에 대해 감사를 전하였다. 일본 투자자들은 WGBI 편입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제도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한국 시장의 성숙도와 정부의 시장 선진화 의지를 바탕으로 한국 국고채를 매력적 투자처로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면담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4월 WGBI 편입 개시를 계기로 한국 국고채에 투자하기 시작했다고 밝히며, 11월까지 편입비중 상승에 맞추어 지속 투자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일부 참석자들은 아직 국고채 투자 준비단계(계좌개설 등)에 있는 기관들도 있는 만큼 앞으로 자금유입 규모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와 함께 실제 투자 집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WGBI 자금유입 효과 극대화를 위한 개선사항 등도 논의하였다. 투자자들은 한국 정부의 노력으로 제도적 제약은 대부분 해소되었지만, 첫 투자였던 만큼 운영상 이슈는 일부 남아 있다고 언급하고, 특히 유로클리어 등 ICSD(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한 투자가 원활해지면 편의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만기 20년 이상 경과물의 유동성 관리를 위해 정부가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허 국고정책관은 “한국 정부는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국고채 시장에 투자하는 데 있어 어떠한 걸림돌도 느끼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WGBI 편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해외 투자자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한국 국고채 시장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투자자들에게 전달하였다.

정부는 「WGBI 상시점검 및 투자유치 추진단」 등을 통해 관계기관과 함께 이번 IR을 통해 제기된 유로클리어 활용 활성화 방안 등 투자자들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해외 투자자 대상 IR을 지속 실시하는 등 투자자들과의 소통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국고실 국채시장과	책임자	과 장	이재우 (044-215-5140)
		담당자	사무관	박종민 (pymwm@korea.kr)

